

# 종정제 100년...정체성 연구 과제

## 김광식 교수,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심층 분석

불교에서 종단 전통의 상징이자 대표인 종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눈길을 끈다. 그동안 종정직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 잣대를 들이대기조차 꺼려올 정도의 높은 위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대각사상) 제19집에서 '조계종단 종정의 역사상' 주제논문에서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종정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김광식 연구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종정제는 종단 변화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변했다. 근대에 들어오기 전 불교를 대표하는 승려 최고위직은 왕사(王師) 또는 국사(國師)였다. 종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02년으로 종정과 유사한 교정(敎正)이 도입됐다. 1941년 태고사범이 인가되며 종정제가 도입된다. 비구승과 대치승 간의 갈등을 거쳐 1962년 등장한 통합종단에서는 종정 직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다. 당시 종정 권한의 확대를 통해 불교 전통 가치를 구현하려는 측과 행정 효율을 통해 불교 발전을 꾀하려는 측 간의 갈등이 심화된다. 1980년 10·27 법난 이후 정화중흥회의는 종헌을 개정해 원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종정의 중앙종회 추대에서 원로회의의 추대권을 옮긴 것이다. 이때 종정은 종단 업무관장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대표로 정립돼갔다.

김 교수는 "종정제 초기에는 종단의 대표성과 조직관리 책임자 성격이 함께 주어졌지만, 실무 행정책임자인 총무원장과의 대립이 격화되며 점차 상징성, 신비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00년 간 유지돼 온 종정제의

### 위상 변화·승단 조직 중요한 문제 율사·강백도 종정 추대 가능성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과제 중 첫째는 종정과 종단의 정체성 문제다.

김 교수는 "종정은 종단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종정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종단 정체성이 일정부분 규정된다"며 "선불교를 내세우는 현대 불교계에서 율사, 강백, 현대불교학을 전문으로 연구한 고승도 종정으로 추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100년을 맞은 종정제에 대한 정체성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조계종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정제 스님

김 교수는 이어 종정의 역할 문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100년간 종정직은 조직관리형, 대표형, 지도자형, 상징형이 혼재했다"며 "종단의 정체성을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인지, 종단 문제와 모순을 해소하는 마지막 해결자인지 자못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세속의 민주성과 승가의 전통성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고 종통 승계 대상인 종정을 대

중들이 불신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정과 관련한 문제는 조계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27개 종단이 가입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60여개 종단이 난립해 있어 그만큼의 종정이 존재한다"며 "종정제는 근현대 한국불교사나 승단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근현대 불교문화재 조사 보고서' 나온다

불교문화재연구원,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사업 중간보고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전주 의곡사 계불조사. 보고서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총괄적으로 다뤄진다.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고 주요 유물의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이 추진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립)는 지난달 30일 '근현대문화유산 종교분야(불교)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목록화 조사 연구 사업은 3월 8일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현대 불교문화재 조사를 위한 시기 구분 및 유물 선별 기준, 조사방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5월 2·3차 자문위원회를 통해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 불

교전적류 등 분야별 주요 조사대상 유물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립 스님은 "이번 목록화 조사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에 관한 조사 및 재정리가 이루어졌다"며 "아직까지 비공개로 남아있는 수많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밀학술조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9월말까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목록화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 문정왕후 어보 찾기 '응답하라 오바마' 시동

문화재제자리찾기, 8월 6일 조계사에서 발대식



8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는 100여 시민이 모여 어보 환수를 결의했다.

문정왕후의 어보를 되찾기 위한 백악관 청원 운동 '응답하라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대표 혜문)는 8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만 청원을 위한 100인위 출범식을 가졌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이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올린 존호인 '성열대왕대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금으로 된 거북이 모양의 왕실 도장이다. 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로 LA주립박물관(LACMA)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어보가 한국전쟁 중에 미군에 의

해 미국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혜문 스님은 "미국 정부가 전쟁기간 미군이 약탈한 물건은 돌려준다는 행정 원칙을 갖고 있어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백악관 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환수 시기까지 진행된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 접속해 서명하면 된다. 서명운동에 2만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335명이 참여했으며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학술·문화재소식

### 반출 금지 번복 '반가사유상' 뉴욕 간다

국외 반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결국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전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Silla, Korea's Golden Kingdom)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특별전에 반가사유상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한 지 11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메트로

폴리탄박물관이 포장, 운송 과정에서 전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조건으로 간곡히 재요청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반가사유상이 그동안 전시를 위해 8회에 걸쳐 약 3천 일간 국외로 반출된 바 있고, 외국은 훼손 우려로 중요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을 고려해 국외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매년 6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세계 3대 박물관이다.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해남 대흥사 천불전 보물 지정

해남 대흥사 천불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시도유형문화재 중 역사적, 예술적,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된 해남 대흥사 천불전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07호로 지정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은 1813년에 중건된 건물로 대흥사 남원의 중심건물로서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1821년 풍계 현정 스님이 기록한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등을 통해 건물의 중건과 천불 조성, 봉안의 역사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건축적으로는 평면 비례, 공포 배치, 상부 가구 등에서 천불을 봉안하기 위한 합리적인 계획 수법을 볼 수 있으며, 공포의 구성과 세부

적 조각수법, 빗천장과 우물천장의 장식과 구성, 창호 등은 화려하지만 지나치지 않고 구조 또한 견실하다.

이러한 공포, 빗천장, 우물천장 등의 구성과 세부적 수법은 인근의 보물인 미황사 대웅전(1754년), 불갑사 대웅전(1764년), 불회사 대웅전(1808년) 등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주며 비교돼 가치가 높다. 이처럼 대흥사 천불전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천불전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흥사 천불전과 보물로 지정 예고됐던 '남양주 수증사 오층석탑'은 이달 중 보물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사학, '문사철' 여름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여름호(통권 제33호)를 펴냈다.

탄허(1913~1983) 스님은 특집으로 다룬 이번호에는 탄허, 그 위대한 생애와 정신(자현) 탄허의 백성의 노장관과 불교관(고영섭) 탄허의 철학사상에 보이는 회통적 사유의 근거(최재묵) 탄허학의

골수와 종지(문광) 탄허학 텍스트의 서예미학(이동국) 등 논문이 실렸다.

또 △삼국유사 기이편에 부치는 10통의 편지(혜산) △테라리아의 그라마볼로지에 대한 포노로지의 반론(박정진) △불성은 어떻게 표현되는가-조선 후기 극락구품도(강소연) 등 글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 전국구도회 수련대회 개최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리영자)은 8월 15~17일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제40회 전국 구도회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수련대회에서는 前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대승의 보살계정', 이윤성 서울대 교수의 '죽음을 대비한다',

리영자 한국불교연구원장의 '대승불교의 보살교단을 지향하며' 등 강의가 진행된다.

또 예불, 참선, 좌담회, 음악회 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15일 오후 3시 유마정사에서는 큰법당 낙성법회도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불기 2557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존현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9월 2일 ~ 9월 4일 (음 7월 27일 ~ 7월 29일)
- ◆ 입 재 : 불기 2557(2013)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입소등록 당일 오후 2시까지 접수요망)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 장 소 : 충남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638번지 일천자원 (041-753-8558)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5) 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1-9704-3247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대승종 중앙 종의회·대승종 교구총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승,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8월 28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